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과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인과모형분석  
-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

이성훈\*<sup>1)</sup>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A Causal Model Analysis of the Family Health of Baby Boomer Parents  
and the Marital Preparation Skill of Eco-Boomer Children  
- Focusing on College-Aged Students -

Lee, Sung Hoon\*<sup>1)</sup>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effects of the family health of baby boomer parents as a determinant of marital preparation skills of eco-boomer children.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475 students born before 1992, and whose parents were born from 1955 to 1963. The programs of SPSSWIN 18.0 and LISREL 8.51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inancial management skills of saving and consumption were the lowest of marital preparation skills of echo-boomer generation. Besides, baby boomer parents' family health perceived by their children was found to be the determinant of the marital preparation skills of eco-boomers. Particularly, the effect of family health was shown to be high on parental role skill, conflict resolution skill, and parenting preparation skill of marital preparation skills, whereas it was revealed to be relatively low on financial management skill.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of marital preparation skills for eco-boomers.

**Key words:** 베이비부머(baby boomer), 에코세대(eco-boomer), 가족건강성(family health), 결혼생활준비기술(marital preparation skill), 인과모형(causal model)

---

1) 교신저자: Lee, Sung-Hoon, 22 Samdeok-ro, 37 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Any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31-467-0936, Fax: 031-463-1386, E-mail: shlee@anyang.ac.kr

2)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I. 서론

최근 1955년~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부모세대와 이들에게서 태어난 에코 자녀세대에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이비붐 부모세대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닌 마지막 세대로서 자녀 양육 및 교육중심의 가족체계를 유지해 온 이들이다. 이들의 현재 연령은 만 50~58세로 본격적으로 사회경제적 은퇴를 맞이하였으나 은퇴준비미흡과 반동지 중후군으로 부부관계 등 가족건강성에 적신호가 생기는 시기이다(Jung, 2012; Kim, Moon, & Shin, 2012). 또한 베이비붐 부모세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 에코 자녀세대는 부모세대가 일군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유년기를 지냈지만 현재 학력인플레이와 취업난, 생활고, 결혼지연과 부적응을 경험하며 힘든 청년기 시절을 보내고 있다(The Dong-A Ilbo, August 3, 2012).

한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전생애주기 동안 사회·경제·심리적 전영역에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의 문제는 자녀의 우울, 학업성취, 학교생활부적응, 자아존중감, 역기능행동, 대인관계능력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Kwon & Oh, 2004; Yang & Han, 2007; Ha, 2008; Ahn, 2009; Ahn, 2009; Kim & Lee, 2011; Lee, Park, Kim, & Park, 2013).

특히 자녀에 대한 원가족의 영향력 중 가족건강성이 자녀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은 기혼자녀세대의 결혼적응 및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Fine, 1988; Forrest, 1991; Holman, Larson, & Hammer, 1993; Jun, 1994; Kim & Kim, 1999; Kang & Kim, 2008), 미혼자녀세대의 결혼이 미지 및 결혼기대, 결혼관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 Chun, 2002; Cho, 2007; Jo, 2009; Park, 2012). 하지만 미혼자녀 대상의 연구주제는 관념적인 결혼의식 및 가치관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며, 향후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결혼생활준비기술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혼생활은 결심과 사랑만으로 지켜내기 어려우며 두 사람의 끊임없는 배려와 기술이 요구된다. 결혼생활의 각 영역별

로 적응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은 결혼이전부터 배우고 익히고 몸에 배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Fowers, Montel과 Olson(1996)은 방대한 임상결과를 통해 결혼준비 척도(PREPARE)가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lein(2000)은 결혼 전의 준비가 결혼의 성공이나 실패를 완전히 예견할 수는 없지만, 미리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후 생활만족도와 결혼생활적응에 결혼생활준비기술이 중요하리라 예측하고 결혼생활준비기술의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이 원인변인임을 밝혀내어 오늘날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기피 및 결혼부적응에 대한 베이비 붐 부모세대의 영향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결혼생활준비기술을 높이기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베이비붐 부모세대와 에코 자녀 세대

현재 베이비부머의 연령은 50대로 가족생활주기 단계적으로 자녀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가족구도가 옮겨진 시점이다. 실제 Jung(2012)의 연구결과에서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에 배우자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78.4%)하고 있어 그들에게 부부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평등하지 못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부부갈등의 발생 등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Hong & Kwak, 2012).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의식은 타 연령층보다 낮게 나타났다(Chung, 2012), 부부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하는 부인에 비해 기존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편의 부부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Woo, 2008). 이에 통계청의 '201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50대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추세이다(Statistics Korea, 2013).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0). 한편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시기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로 생각하는 비율이 41.5%로 나타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반해(Jung, 2012) 노후준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2).

예코 세대는 베이비 부부세대가 낳은 1979-1992년에 출생한 자녀들로, 실제 베이비부머의 전체 자녀 중 1979-1992년에 출생한 자녀는 82.8%를 차지하고 있다(Bae, 2013). 예코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샴포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연애나 결혼이 아닌 취업과 경제활동이다. 또한 취업이 되더라도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세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무한한 지원 속에서 풍요로운 소비문화에 익숙한 반면 재무설계나 재무관리능력은 매우 부족하고(Im, 2013)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예코 세대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많으며,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이들의 만족감, 감정 이해, 의사소통, 개방성 등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2009).

## 2. 결혼생활준비기술

국내에서는 '결혼준비도'라는 개념을 최초로 연구한 Kim과 Park(2001)은 델파이 기법을 통해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해 기준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결혼준비는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한 정서적·인격적·신체적·경제적·법적·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개인적, 커플관계적, 결혼생활준비 측면으로 결혼준비진단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측면은 개인의 성숙, 독립, 건강이며, 커플

관계적 측면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 등이며, 결혼생활준비 측면은 성, 결혼관, 결혼생활정보, 역할분담, 자녀출산과 양육, 재정관리, 양가가족에 대한 파악 및 이해 등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결혼관,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총 7개 영역의 결혼준비도 척도를 개발하고(Kim & Shin, 2002),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여 결혼상대자가 있는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준비도 실태를 조사 발표(Kim & Lee, 2003)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지지할 만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결혼상대자가 정해져있지 않은 대학생 대상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국에서 개발된 결혼준비정도를 평가하는 도구 중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Fowers, Montel과 Olson(1996)의 PREPARE(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이다. PREPARE는 인성관련주제(personality issues)의 주도성(assertiveness), 자신감(self confidence), 회피성(avoidance), 상대에 대한 지배성(partner dominance), 개인내적 관련주제(intrapersonal Issues)의 이상왜곡(idealistic distortion), 성격문제(personality issues), 종교(spiritual beliefs), 여가생활(leisure activities), 결혼에 대한 기대(marriage expectations), 결혼만족(marriage satisfaction), 개인외적 관련주제(interpersonal issues)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출산과 양육(children and parenting), 친밀감(couple closeness), 역할관계(role relationship), 성적관계(sexual relationship), 외부관련주제(external issues)의 가족과 친구(family and friends), 금전관리(financial management), 가족친밀도 및 가족융통성(family closeness & family flexibility)의 총 19개 세부영역의 16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Olson과 Olson(1999)은 PREPARE/ ENRICH 프로그램의 Version 2000을 소개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중요한 7개의 영역으로 의사소통, 갈등해결, 역할관계, 재정관리, 부모역할, 성관계, 종교적 신앙을 선정하였다(Olson & Olson, 2000).

한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향후 대상자의 결혼준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 검사척도를 살펴보면, 결혼상대자가 있는 커플 및 예비부부 대상에게는 교

육전후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로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하고(Park & Im, 2009), 자아존중감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 이해, 평등한 역할,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의 변화정도로 측정하기도 하였다(Jung & Kim, 2001). 결혼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대학생 대상의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본 Lee와 Chun(2004)는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의 각각 영역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Sohn과 Kim(2005)는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선택, 성의식, 성역할관으로 사전사후 변화를 측정하였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은 미혼의 성인남녀를 위한 결혼준비 평가척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대상의 결혼준비측정은 사랑관, 결혼관, 가족관, 성의식, 성역할관 등 관념적인 가치관 측정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행동의 측정, 기술적 능력 항목의 보완이 절실하다. Lee, Choi, Seo와 Chi(2004)는 기존의 결혼준비교육내용은 심리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재정관리나 가사노동 등의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문제점과 장단기 가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관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01, 2002, 2003)의 ‘결혼준비도’ 개념과 Olson et al.(1999, 2000)의 PREPARE 척도에서 개인적 측면의 정서심리적 영역과 커플관계적 측면은 제외하고 결혼생활의 각 영역별로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전 갖추어야 할 더욱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기술(skills)들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생활준비기술(Marital Preparation Skills)’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을 갈등해결, 성생활, 가사노동, 재정관리, 여가관리, 부모준비, 부모역할로 분류하여 각 생활영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혼성인남녀의 준비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결혼상대자가 정해져있지 않은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현재 이성친구가 없더라도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 3. 원가족 건강성과 자녀의 결혼생활

가족건강성의 평가기준에 대해 Olson(2004)는 가족원의 구성 및 형태와 같은 외적 구조가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친밀감, 응집성, 위기관리능력 등의 내적 기능이라고 하였다. 또한 Yoo(2004)는 “건강가정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 등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며, 친족·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생활해가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Cho et al.(2010)은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방적 의사소통의 가족관계, 가족역할공유, 지역사회와의 관계, 건전한 가정생활문화 등을 나열하면서 기본토대는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및 경제적 안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현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녀의 결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을 평가할 때는 원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의 질 등의 부모가족의 특성도 포함시켜야 한다(Jun, 1994; Kang & Kim, 2008).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결혼생활준비정도와 원가족 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지만, 자녀의 결혼생활과 관련한 변인들에 대한 원가족의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Park(2012)의 연구결과, 자녀세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이미지와 결혼기대가 긍정적이었다. 특히 가족내 정서적 교류가 많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갈등해결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가정을 돌보는 역할 기대가 높았다. 즉 원가족의 관계적 측면이 자녀세대의 향후 결혼생활에서의 역할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향후 결혼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은 원가족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부부관계가 자녀의 낭만적 이성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Cha & Chun, 2002),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된 성인초기 대학생 자녀일수록 이성관계 친밀감 위험정도는 높게 나타났다(Chung, 2004).

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1999)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근원가족의 건강도가 결혼적응에 가

장 인과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기혼자녀세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Cho & Chung, 2009), 여성의 경우 친정부모님의 결혼생활이 원만했다고 지각할수록 현재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 Kim, 2008). 또한 부모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은 기혼자녀세대에게 세대간 전이되며(Ha & Chung, 2008), 결혼 후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oo, 2001).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원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측정은 당사자인 부모세대가 아닌 자녀세대의 지각에 의존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결과가 실제와 관련이 적을 수도 있으나 가족의 실제 모습보다 자녀세대가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을 평가하는데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Kim & Kim, 1999).

이상과 같이 자녀세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미혼자녀의 긍정적 결혼기대와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자녀세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인과모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4곳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고학년을 중심으로 남녀대학생에게 자기응답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총 620부를 설문실시하여 596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96.1%), 응답이 부실한 20부를 제외한 576부 중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부모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하였으며, 대학생 자녀세대가 1992년 이전 출생에 해당하는 475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475명으로 남학생이 250명(52.6%), 여학생이 160명(47.3%)이었다. 출생연도는 1992~1990년생이 220명(46.3%)로 가장 많았으며, 1989~1987년생은 197명(41.5%), 1986-1983년생은 58명(12.2%)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약 70%(332명)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은 117명(24.6%), 2학년 24명(5.05%), 1학년 2명(0.42%)이다. 전공계열은 인어문계열 70명(14.7%), 상경계열 132명(27.8%), 이공계열 212명(44.5%), 예체능계열 61명(12.8%)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5

	Category	Frequency	%
Sex	Male	250	52.6
	Female	225	47.3
Year of birth	1992-1990	220	46.3
	1989-1987	197	41.5
	1986-1983	58	12.2
School year	Freshmen	2	0.42
	Sophomore	24	5.05
	Junior	117	24.6
	Senior	332	69.9
Major	Linguistics & Humanities	70	14.7
	Commerce & Business	132	27.8
	Engineering	212	44.5
	Arts & Athletics	61	12.8
Total		4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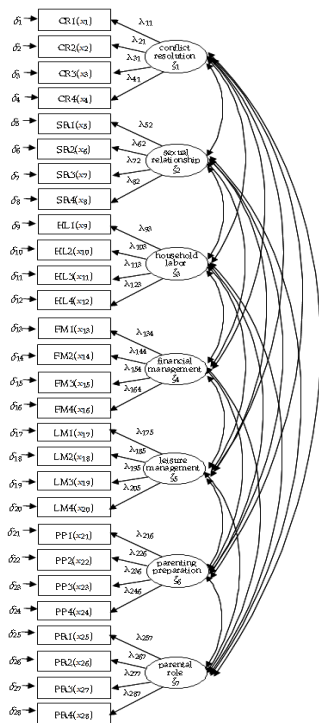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on Marital Preparation Skill

$\chi^2=676.97(p=0.00)$   $df=329$   $RMSEA=0.04$   $SRMR=0.05$   $GFI=0.90$   $AGFI=0.88$   $PGFI=0.73$   $CN=257.83$

2. 측정도구

Yoo(2004)와 Cho et al.(2010)이 제시한 건강가정의 구성 요소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가족원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위기관리능력,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관계의 5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의 알파계수는 .66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생활준비기술의 측정도구는 Olson과 Olson(1999), Olson과 Olson(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생활준비기술을 가족자원관리 측면에서 결혼생활의 각 영역별로 갈등해결기술(경청, 공감, 자기주장, 타협), 성생활(성욕 조절,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 성적가치관 존중, 피임지식), 가사노동(공평한 분담의식,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재정관리(저축습관, 합리적 소비, 예산계획, 금융정보), 여가관리(여가공유, 여가조율, 개인적 여가생활, 개별여가배려), 부모준

비(계획입신, 부모됨 자신감, 긍정적 동기, 희생수용), 부모역할(부모이해, 양육의 융통성, 아버지역할의 중요성, 발달단계 지식)의 7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7개의 영역별 각 4개의 문항, 총 28개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적일관성 분석결과, Cronbach의 알파계수는 .79로 신뢰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내용타당도는 전공교수 2인 및 가정학 박사 전공자 2인을 통해 검증 받았다.

결혼생활준비기술변인의 7개 하위영역의 개념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통계량에 대한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모형이 자료에 의해 잘 부합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타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RMSEA는 0.04, SRMR는 0.05, GFI는 0.90, AGFI는 0.88, PGFI는 0.73, CN은 257.83으로 결론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sup>2)</sup>고 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또한 각 측정항

1)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이 하위영역별 요인측정의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Kim & Kang, 2001).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인자의 구조 등에 관한 가설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개수의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라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개념적 의미를 고려한 적합도를 통해 구축된 가설을 실제 얻어진 자료가 얼마나 확증 또는 지지해주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Table 2. Parameter Estimat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Marital Preparation Skill

Factor	Item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Conflict resolution $\xi_1$	1. I listen carefully to other people's opinions during disagreements(x1).	0.69	14.70
	2. I try to understand other people's concerns during disagreements(x2).	0.71	15.29
	3. I tell other people what I want without getting mad during disagreements(x3).	0.74	15.93
	4. I don't have problems reaching a consensus during disagreements(x4).	0.57	11.72
Sexual relationship $\xi_2$	1. I can control my sexual desire by recognizing other people's sexual self-determination(x5).	0.30	5.05
	2. I can speak frankly about my opinions about sex(x6).	0.49	8.14
	3. I don't criticize and respect other people's sexual values(x7).	0.54	8.95
	4. I am well aware of appropriate contraceptive methods(x8).	0.49	8.21
Household labor $\xi_3$	1. Dual-income couples should share household labor equitably(x9).	0.22	3.91
	2. I can take care of my meals by cooking myself(x10).	0.59	10.83
	3. I can maintain a clean home by tidying my room and dusting(x11).	0.51	9.40
	4. I can use the washing machine and arrange my clothes after laundering(x12).	0.71	12.83
Financial management $\xi_4$	1. I am currently saving money regularly(x13).	0.48	9.55
	2. I spend rationally while considering my financial situation(x14).	0.59	11.59
	3. I make a long-term financial plan(x15).	0.91	16.89
	4. I am very much interested in economic trends and financial information(x16).	0.39	7.68
Leisure management $\xi_5$	1. I enjoy spending my leisure time with those close to me(x17).	0.73	14.50
	2. I don't have problems in coordinating leisure activities when there are disagreements among participants on planning activities(x18).	0.77	15.38
	3. I have my own leisure activities that I participate in consistently(x19).	0.58	11.58
	4. I can yield to or allow without qualm other people's personal leisure activities during group outings(x20).	0.19	3.52
Parenting preparation $\xi_6$	1. When I want a child, it will be a planned pregnancy(x21).	0.26	5.07
	2. I feel confident that I will be a good parent(x22).	0.71	15.21
	3. Loving each other and being happy are the reasons for having a child(x23).	0.70	14.88
	4. I expect many difficulties in child-rearing but I can cope with that(x24).	0.80	17.35
Parental role $\xi_7$	1. I understand my parents' parenting style even if I am not satisfied(x25).	0.35	5.91
	2. Parenting style can be flexibl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children(x26).	0.43	7.00
	3. Men also should participate in child-rearing(x27).	0.27	4.67
	4. I am aware of the core developmental tasks by the stages of human development(x28).	0.31	5.30

목에 대한 모든 추정치의 t-값이 1.96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참조).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과 LISREL 8.5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건강성 및 결혼생활준비기술정도의 일반적 성향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항 목 측정변인의 내적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Cronbac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혼생활준비기술의 각 하위영역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족건강성과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인과모형(causal model)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하였으며 결과분석은 완전표준회추정치를 통해 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2) Joreskog와 Sorbom(1996)은 전적으로  $\chi^2$  의 값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우수한 적합도의 기준은 RMSEA는  $\leq 0.05$ , SRMR는  $\leq 0.05$ , GFI와 AGFI는  $\geq 0.90$ , PGFI는  $\geq 0.5$ , CN은  $\geq 200$  이다(Kim & Kang, 2001).

Table 3. The Family Health of Baby Boomer Parents

		N=475	
	Item	M	SD
Family health	1. The members of my family are able to talk to each other openly about what each of us wants.	3.41	.98
	2. When my family makes a decision, we try to listen to each other's opinions before reaching a mutual agreement.	3.42	.95
	3. When my family members meet any difficult situations, we try to deal with them calmly.	3.69	.81
	4. My family does not have any problems in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such as clothing, food and housing.	4.17	.76
	5. My family gets along very well with neighbors in our community.	3.61	.96
Total		3.66	.58

#### IV. 연구결과

##### 1.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우리가족의 가족건강성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가족건강성의 평균은 3.66점으로 중간을 상회하는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의식주생활’(4.17점)은 건강성이 높은 반면 ‘개방적 의사소통’(3.41점)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 2.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전체 평균은 3.68점으로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하

위영역별로 부모준비기술(4.18점), 성생활기술(4.10점), 가사노동기술(4.02점), 부모역할기술(3.90점), 여가관리기술(3.47점), 갈등해결기술(3.32점), 재정관리기술(2.78점)의 순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와 자신감은 높으나 장기적인 예산계획 하에서 저축, 소비하는 재정관리기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에코세대는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Im(201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Im(2013)는 에코세대는 풍요로운 성장기 때 익숙해진 소비습관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지금 순간을 누리고 향유하기 바쁘며 자연히 결혼이나 출산, 양육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와 현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3. 가족건강성과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인과모형

본 연구에서 가정된 가족건강성과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

Table 4. The Marital Preparation Skill of Eco-Boomer Children

		N=475	
	Subordinate domain	M	SD
Marital preparation skill	Conflict resolution	3.32	.65
	Sexual relationship	4.10	.51
	Household labor	4.02	.63
	Financial management	2.78	.79
	Leisure management	3.47	.70
	Parenting preparation	4.18	.60
	Parental role	3.90	.44
Total		3.68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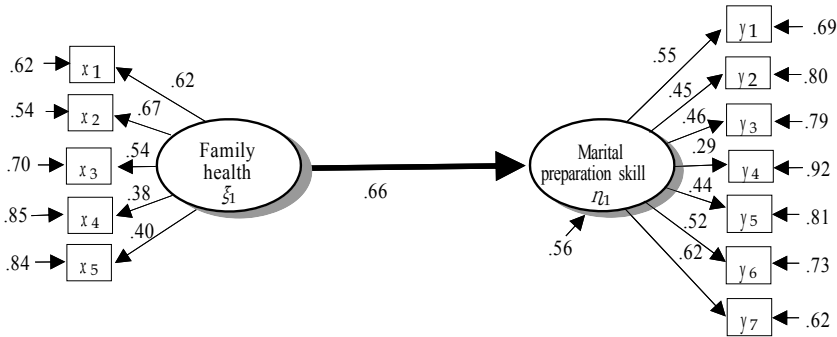


Figure 2. The Causal Model of Family Health and Marital Preparation Skill

$\chi^2=142.93(p=0.00)$   $df=53$   $RMSEA=0.06$   $SRMR=0.05$   $GFI=0.95$   $AGFI=0.93$   $PGFI=0.65$   $CN=249.60$   
 -  $x_1$ :open communication  $x_2$ :rational decision-making  $x_3$ :crisis management competence  $x_4$ :stable life of clothing, food, and housing  $x_5$ :amicable community relationships  $y_1$ :conflict resolution skill  $y_2$ :sexual relationship skill  $y_3$ :household labor skill  $y_4$ :financial management skill  $y_5$ :leisure management skill  $y_6$ :parenting preparation  $y_7$ :parental role  
 - All parameter estimat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and significant at .05 level.

한 인과모형의 부합도를 살펴보면  $\chi^2$  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 $p=0.00$ )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적합지수를 확인한 결과, RMSEA는 0.06 SRMR는 0.05 GFI는 0.95 AGFI는 0.93 PGFI는 0.65 CN은 249.60으로 결론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측정항목에 대한 모든 추정치의  $t$ -값이 1.96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2> 참조).

결론적으로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은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원인변수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이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가족건강성은 결혼생활준비기술 중 부모역할기술과 갈등해결기술, 부모준비기술에 대한 영향이

컸으며 재정관리기술에 대한 영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가족의 건강정도와 자녀의 재정관리기술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의식(Jung, 2012)를 반영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가족건강성의 5개의 잠재변인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x_2$ )과 개방적 의사소통( $x_1$ ), 위기관리능력( $x_3$ )이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더 높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참조).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가족의 갈등해결방식이 긍정적인수록 자녀의 향후 부모역할 등 가정돌봄역할 기대가 높다고 한 Park(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5. Parameter Estimates on the Causal Model of Family Health and Marital Preparation Skil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s	Family Health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Marital preparation skill	Conflict resolution	0.37	8.10
	Sexual relationship	0.30	6.98
	Household labor	0.31	7.15
	Financial management	0.19	4.84
	Leisure management	0.29	6.84
	Parenting preparation	0.35	7.78
	Parental role	0.41	8.68
	Total	0.66	8.10

## V. 결론

성인초기 이성교제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대학생 시절은 배우자 선택의 과정이며 미래 결혼생활의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생활준비기술은 궁극적으로 결혼생활의 적응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기술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시절 결혼생활 준비기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은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이 밝혀졌다. 이는 원가족의 건강성이 미혼자녀의 결혼생활에 대한 역할기대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2012)의 연구결과와 기혼자녀의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Kim & Kim, 1999; Kim & Yoo, 2001; Ha & Chung, 2008; Kang & Kim, 2008; Cho & Chung, 2009)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 중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개방적 의사소통, 위기관리능력 등이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더 높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현재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 항목 중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노년기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가정사업은 다음 세대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은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에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은퇴 이후 가족건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Jung, 2012; Kim, et al., 2012) 에코 자녀세대에 대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필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 에코세대는 7개의 결혼생활기술 영역 중 상대적으로 갈등해결기술(3.32점)과 재정관리기술(2.78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기술과 재정관리기술은 일상적인 의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기술로 교육을 통한 올바른 기술

습득과 장기적인 습관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과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인 대학생 시절 동안 이들에 대한 경청, 공감, 자기주장, 타협의 갈등해결기술과 저축 습관, 합리적 소비, 예산계획, 금융정보의 재정관리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에코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에 익숙해있다. 미래의 결혼 및 독립이 준비 안 된 에코 세대는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거나 다시 부모에게 기대는 썩어루족이 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부모세대들은 여전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부양에만 몰두하다가 자신의 은퇴이후 삶은 준비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준비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전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관련 교과목이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모로 이루어지는 결혼관련 교양수업을 통한 결혼생활준비기술의 훈련과 제고는 교육생의 숫자적인 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고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대학생 대상의 결혼관련 교육내용은 사랑관, 결혼관, 가족관, 성의식, 성역할관 등 관념적인 가치관 및 심리적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보다 기술적 능력과 실질적인 행동습득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를 기초하여 대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기술과 재정관리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자녀세대의 부모역할기술과 갈등해결기술, 부모준비기술에 대한 가족건강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커플대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시단계에서 이러한 원가족의 건강성 정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차별화하여 더욱 세분화하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자면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에 영향 받은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이 향후 이들의 결혼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실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은 미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

전에 결혼준비에서 보완되어야 할 관리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개인심리적·커플관계적 측면의 결혼준비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혼생활준비기술을 포괄한 종합적인 ‘결혼준비도’의 척도가 개발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족건강성과 결혼생활준비기술의 인과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에코 자녀세대와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시킨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hn, G. Y. R. (2009). A Study on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Health Level of a Family & Crisis of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1*(2), 91-103.
- Ahn, Y. J. (2009). *The Effects of Emotional Health of Family-of-Origin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Dysfunctional Behavior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Bae, E. Y. (2013). *Research on Key Characteristics of Housing and Choice of Housing Size for Echo Generation: Focusing on Songpa District of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Cha, J. H., & Chun, Y. J. (2002).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Intimacy among the Dating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1), 39-57.
- Cho, E. K., & Chung, H. J. (2009).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ed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health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105-132.
- Cho, E. S. (2007). *The Effect of the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Marital and Family Values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Cho, H. K., Kim, K. S., Jung, M. J. Song, H. R., Lee, S. M., Sung, M. A., & Lee, H. A. (2010). *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Seoul: Shinjeong.
- Chung, S. D. (2012). The Familial Features of Baby Boom Generation Compared with Other Age Groups. *The Seventh Forum on the Future Initiative of Baby Boom Generation*.(pp.41-76)
- Chung, Y. K.(2004).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of Early Adult: Moder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Disclos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Fine, M. (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to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51-57.
- Forrest, M. (1991). *Family of 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niversity of Arkansas, Fayetteville, AR, USA.
- Fowers, B. J., Montel, K. H., & Olson, D. H. (1996). Predictive validity of types of premarital couples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1), 103-119.
- Ha, S. H. (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of-Origin Health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6*(2), 115-132.
- Ha, S. H., & Chung, H. J. (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amily-of-origin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2), 789-806.
- Holman, T. B., Larson, J. H., & Hammer, S. I.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1), 46-52.
- Hong, S. H., & Kwak, I. S. (2012).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class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4), 69-92.
- Im, M. R. (2013). *A Study on the Measures Enhancing the*

-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Based on the Economic Activity of Eco Boomer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Jo, H. R. (2009). *The Effect of Parental Conflict and Self-Differentiation on Marriage Image among Single Man and Woman in Early Adult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Joreskog, K. G., & Sorbom, D. (1996).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Jun, C. A. (1994). *The Effect of Couple'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on Marital St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K. H. (2012). An Outlook of Baby Boomers' Old Age Lif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87, 40-49.
- Jung, M. H., & Kim, D. S. (2001). Constructing Pre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and Investigating Its Effec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4), 69-83.
- Kang, H. S., & Kim, Y. H. (2008).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with Young Couple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6(1), 135-156.
- Kim, H. J., & Kim, M. C. (1999).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in Family-of-Origin, Self-Esteem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2), 39-60.
- Kim, H. J., & Lee, H. K. (2011).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 and School Mal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Family and culture*, 23(1), 77-104.
- Kim, H. S., & Lee, J. U. (2003). The Study on Premarital Preparation of Single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211-224.
- Kim, H. S., & Park, H. S. (2001). A Preliminary Study on Diagnostic Process for Premarital Preparation by Using a Delphi Method: With Purpose of Developing Too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7), 125-144.
- Kim, H. S., & Shin, S. A. (2002). Development of Premarital Preparation Evaluation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3), 41-53.
- Kim, K. Y., & Kang, H.C. (2001).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Using LISREL(SIMPLIS).* Paju: Freedomacademy.
- Kim, M. H., Moon, J. H., & Shin, E. K.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jugal Relation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the Pre-Elder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3), 211-239.
- Kim, S. K., & Yoo, Y. J. (2001).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s Emotional Health and Ego-ident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6(1), 43-64.
- Klein, D. M. (2000).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Journal of Marital and the Family*, 62, 849-852.
- Kwon, D. H., & Oh, Y. J. (2004).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115-127.
- Lee, J. H., Park, O. I., Kim, J. H., & Park, J. S. (2013). The Effect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ir Parents Perceptio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4(1), 13-25.
- Lee, S. H., & Chun, Y. J. (2004). Gender and the Impact of Premarital Education Cours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4), 127-139.
- Lee, Y. H., Choi, B. A., Seo, M. R., & Chi, Y. S. (2004). Premarital Preparation Program for Better Life: Focused on NGO's move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27-43.
- Olson, D. H. (2004). *Marital and family strength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KIFS. Korean International Family Strengths Conference.
- Olson, D. H., & Olson, A. K. (1999). PREPARE/ENRICH

- Program: Version 2000. In R. Berger, & M. Hannah(Eds.), *Handbook of preventative approaches in couple therapy*, 196-216, New York: Brunner/Mazel, Inc.
- Olson, D. H., & Olson, A. K. (2000). *Empowering couples: Building on your strengths*. Minneapolis, Minnesota: Life Innovations, Inc.
- Park, H. L. (2012). *The Effect of the Family Strength on Image of Marriage and Marital Expecta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 Park, J. H., & Im, S. Y.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for Marriage Expectant Coup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29-42.
- Sohn, J. Y., & Kim, J. O.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3), 219-236.
- Statistics Korea (2010). *The Characteristics of Baby Boom Generation Seen Through Social Survey*. Statistics Korea (2013). *Population Trends*, April, 2013.
- The Dong-A Ilbo (2012). 취업난 결혼난 주택난... 에코세대는 '애고세대'. August 3, 2012.
- Woo, M. S. (2008). *A Study on Marital Intimacy of Middle-aged Men and Women: Focusing on Ego Identity, Marital Communication,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M. S., & Han, Y. S. (2007). The Influence of Child'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ens an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on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 Transi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1), 351-363.
- Yoo, Y. J. (2004). *The Meaning and Prospective Direction of Korean Healthy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f the Tenth Anniversary of UN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Korean Healthy Family Association.(pp.9-29)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이 원인변인임을 밝혀내어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결혼생활준비기술을 높이기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하였으며, 대학생인 자녀세대가 1992년 이전 출생에 해당하는 475부를 SPSSWIN 18.0 프로그램과 LISREL 8.5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 중 저축, 소비하는 재정관리기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세대가 지각한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가족건강성은 에코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준비기술에 대한 원인변수임이 밝혀졌다. 특히 가족건강성은 결혼생활준비기술 중 부모역할기술과 갈등해결기술, 부모준비기술에 대한 영향이 컸으며 상대적으로 재정관리기술에 대한 영향은 낮게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11월 08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2월 24일